

## 「제1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들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투고된 논문은 총 110편이며, 그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43편이다.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는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에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게 되었다.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준형의 “하우스푸어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논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가계금융복지자료를 활용하여 하우스푸어 가구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존의 하우스푸어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논리 전개에 있어 저자의 주관적 생각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나갔다. 본 연구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모호한 상태로 회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명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지식의 지평을 넓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한된 쪽수의 논문에 밀도 있는 내용을 담아낸 것도 최우수논문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원배·신혜원의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정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왔음을 지적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며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동태적 차원에서 지역 탄력성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 경쟁력을 지역의 경제위기 대응능력에 초점을 맞춘 지역 탄력성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지역문제의 초점을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면에서 학술적 기여도가 크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및 분석 방법의 단순성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향후 지역문제의 초점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김동한의 “메트로나미카 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논문은 공간정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서 미래의 도시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셀룰라 오토마타 기법을 적용한 도시모형이 범용되었으나, 이 모형은 전역적 차원에서의 공간변화 총량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셀룰라 오토마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메트로나미카 모형을 이용하였고, 수도권 미래 도시성장과 관련하여 몇 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나리오의 구성 측면에서 도시의 자발적 성장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초고속 광역교통망 개선정책과 같은 정책개입으로 인한 도시성장을 구분하여 그 패턴을 비교 분석한 점도 흥미롭다. 이 논문은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과의 연계 측면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도시성장패턴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 한 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